①불꽃처럼 나비처럼
②내사랑 내곁에
③굿모닝 프레지던트
④전우치

한국영화 흥행 하반기에도 쭈~욱

'해운대' 대박 이을 화제작 줄줄이 개봉 대기

'굿모닝 프레지던트' 장동건 4년만에 충무로 복귀작

'불꽃처럼 나비처럼' 명성황후와 호위 무사의 사랑

'내사랑 내곁에' 김명민·하지원 절정의 연기 볼 만

'전우치' 강동원·김윤석·임수정 화려한 캐스팅

'괴물'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에 이어 4번째로 1천만 관객 동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해운대'를 비롯해 '국가대표' 등이 잇따라 선전하며 하반기 한국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영화 점유율은 51.1%였다. 한국영화가 점유율 50%를 넘긴 것은 한국 영화 호황기였던 지난 2006년 이후 3년만이다.

하반기에도 한국 영화 열풍이 계속될까. 일단 하반기 외국영화 라인업 가운데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를 제외하고는 큰 대작은 없어 기대감을 높인다.

재치있는 유머와 특유의 상상력의 소유자 감독 장진이 메가폰을 잡은 '굿모닝 프레지던트'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다.

로또에 당첨되면 전액 기부하겠다는 약속과 당첨금 244억원 사이에서 속병을 앓는 서민 대통령, 헌정 사상 초유의 꽃미남 싱글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주 인물이다.

'태풍' 이후 4년만에 충무로에 복귀한 장동건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이순재·고두심이 대통령으로 출연한다. 여배우로는 장동건과 러브라인을 만들어가는 야당 대변인 역의 한채영과 장영남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불꽃처럼 나비처럼'은 시대물이다.

야설록의 동명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불꽃처럼 나비처럼'은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와 그녀를 지키는 호위무사 무영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지금까지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한 명성황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여주인공역으로는 단아한 이미지의 수애가 출연하며 연기파 배우 조승우가 무영역을 맡아 군 입대 전 마지막 작품으로 촬영을 마쳤다.

'와니와 준하' '분홍신'의 김용균 감독 작품으로 드라마 '궁', 영화 '혈의 누'와 '신기전'을 통해 멋진 화면을 선보인 민언옥 미술감독 등 베테랑 제작진이 참여했다.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함께 추석 개봉을 준비중인 정통 멜로영화 '내사랑 내곁에'도 관심을 집중시키는 영화다.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한 남자와 장례지도사의 사랑을 그린 '내사랑 내곁에'는 절정의 연기력을 보이고 있는 김명민과 최근 '해운대'로 흥행 대박을 터트린 하지원의 결합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너는 내운명'으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박진표 감독 영화라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하반기 최대 기대작은 연말 개봉 예정인 '전우치'다. 하반기에 선보이는 유일한 블록버스터 영화로 100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전우치'는 누명을 쓰고 그림족자에 갇힌 조선시대 도사 '전우치'가 500년 후인 현대에 봉인에서 풀려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괴들에 맞서 싸우는 활약상을 그리고 있다.

'전우치'는 화려한 캐스팅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주인공 전우치역의 강동원을 비롯해 '추격자', '거북이가 달린다'의 김윤석, '왕의 남자'의 유해진과 함께 임수정·염정아·백윤식·선우선 등이 출연한다.

'범죄의 재구성', '타짜'의 최동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더욱 기대감을 높인다.

그밖에 한석규, 손예진, 고수가 출연하는 스릴러물 '백야행 : 하얀 어둠속을 걷다', 송강호·강동원 주연의 '의형제' 등도 하반기 기대작 중 하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퍼펙트 겟어웨이

하와이 풍광 배경 커플 세쌍이 펼치는 어드벤처 스릴러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하와이를 배경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쌍의 커플이 만들어가는 스릴러물이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 시드니와 클리프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즐거운 여행을 하던 도중에 오하우 섬에서 신혼부부가 커플 살인마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두사람은 여행 중 히치하이킹을 거절했던 살벌한 인상의 커플이 가는 곳마다 눈에 띄자 괜히 오싹한 기분을 느낀다.

우연히 다른 커플과 동행하게 된 두 사람은 그들 역시 미심쩍어 보이자 불편함을 느끼고,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에게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강한 역할을 주로 맡았던 밀라 요보비치가 여주인공 시드니로 출연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다이하드 4.0', '히트맨'의 티모시 올리펀트, 스티브 잔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리딕 : 헬리온 최후의 빛', '에일리언 2020' 등을 만든 데이비드 토히 감독 작품이다. 허를 찌르는 영화 마지막의 반전에 동의할 지는 관객들의 판단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